

※ 이 자료는 오늘 현재의 전망으로서 향후 교섭 진행상황
또는 예기치 않은 변수의 발생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및 대응방향

'06. 7. 5

노사관계조정팀

목 차

1. 상반기 노사관계 현황 및 평가	1
① 중앙단위	1
② 산업현장	3
2.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	4
① 하반기 주요쟁점 및 변수	4
② 주요 업종별 전망	6
3. 대응방향	8

1. 상반기 노사관계 현황 및 평가

- ◇ 상반기 노사관계는 무난하게 마무리
 - 중앙단위에서는 노사정 대화가 복원되어 활발히 진행
 - 산업현장은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

Ⅰ 중앙단위

□ 노사정간 대화 활성화

- '05.6월 이후 단절되었던 노·정관계가 금년들어 대화국면으로 전환
 - 한국노총은 2월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전면복귀
 - 이후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관계개선 도모 및 노사정 대화에 참여
 - 4.27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도출
 - 민주노총은 3월 노사정위원회를 제외한 정부위원회에 복귀
 - 3.20부터 장기분규 사업장 해결을 위한 정례협의 및 다각적 채널을 통해 정부와 활발히 대화
 - 6.19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하여 6.21부터 참여
→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중
- ⇒ 노사정간 최고위급부터 실무급까지 다양한 현안 및 의제에 대해 긴밀히 대화

□ 비정규직 보호입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

-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상반기중 4차례의 총파업 실시
 - 다만,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2~4시간의 부분파업 및 간부 중심의 집회 개최
 - ▲ 2.28 71개소 4만9천여명 ▲ 3.2 75개소 6만2천여명
 - ▲ 4.10~14 85개소 6만2천여명 ▲ 4.21 70개소 4만6천여명
- 한국노총은 국회가 자신들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줄 것을 계속 요구
- 이러한 과정에서 양 노총간의 노선차이도 노정
 - 한국노총은 「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」을 천명하고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적극 부각시키는 등 민주노총과의 차별화를 시도
 - ※ KOTRA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약정서 체결(4.18), 국민과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(5.1), 위원장이 「국가투자설명회」에 동행하여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 전개(6.28~29)

□ '07년 복수노조시대 대비를 위한 노동계 자구노력 전개

- 양 노총 모두 '07년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산별노조 전환을 적극 추진
 - ▲ 민주노총 : '06.1.11 중앙위에서 6월중 산별노조 건설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「산별노조 건설 및 발전 특별위원회」 구성
 - ▲ 한국노총 : '06.2.28 대의원대회에서 각 연맹내 「산별노조 전환 추진단」을 구성, 각 연맹별로 6월이전 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전환을 결의키로 결정
 - 민주노총 금속연맹은 6.26~6.30 산별전환 투표 실시 → 현대차·기아차·GM 대우 등 13개소 가결
 - ※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내 타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이 잇따를 전망
 -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6.26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안 부결
- 한편, 한국노총은 경총과 함께 「(가칭)노사발전재단」 설립도 추진

② 산업현장

□ 산업현장은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

○ 3.1~3.4 철도파업 등으로 노사관계가 다소 불안하기도 하였으나, 그후 안정국면 지속

- 작년 상반기대비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32.9% 감소

▲ 분규발생건수(건) : '04.상반기 337 → '05.상반기 73 → '06.상반기 49

▲ 근로손실일수(천일) : '04.상반기 409 → '05.상반기 161 → '06. 상반기 173

* 근로손실일수는 철도파업(4만5천일) 및 작년보다 일찍 시작된 현대차 부분파업(1만 2천일)으로 약간 증가

- 300인 이상 대기업 분규발생건수도 감소하는 추세

▲ '04.상반기 83건 → '05.상반기 15건 → '06.상반기 17건

□ 원·하청 등 새로운 유형의 노사갈등 대두

○ 사내하청업체의 불법파견 및 폐업에 따른 재고용 문제, 지역건설노조 파업 등 새로운 유형의 노사갈등 빈발

- 사용자 또는 교섭당사자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해결이 어렵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집회, 점거농성 및 물리적 충돌 발생

※ 하이닉스-매그나칩·KM&I,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파업 등

○ 적극적인 중재와 민주노총과의 정례협의 등을 통해 장기분규 사업장이 잇따라 해결

※ 여주CC(3.31), 안산공과대학(4.5), 루치아노최(4.28), GM대우 창원공장(5.11), 현대하이스코(5.13), 현대금속(6.1), 한국조세연구원(6.14) 등

2.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

- ◇ 하반기에도 산업현장은 계속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
 - 7.12 한미FTA 협상저지 투쟁을 전후로 자동차·금속 등 주요업종의 분규가 집중될 예정
 - 다만,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논의결과가 하반기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

① 하반기 주요쟁점 및 변수

□ 한미FTA 협상

- 민주노총은 한미FTA 체결시 제조업·농업·서비스 부문 등의 막대한 피해와 고용불안 등을 우려하여 협상에 적극 반대
 - 한미FTA 2차 협상(7.10~14) 시기에 맞춰 7.12 6시간 부분파업 및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예정
 - ※ 부분파업은 금속연맹 및 임단협 교섭진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예상
 - ※ 결의대회는 14:00 광화문에서 3만명을 동원하여 개최 → 16:00 서울 시청에서 10만명 목표의 「국민 총궐기의 날」 집회에 합류
- 한국노총도 7.8 「전국노동자대회」 개최 예정(13:00 대학로, 5만명 목표)

□ 노사관계 선진화방안

-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
 -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가능성 상존
 - ※ 대정부 투쟁일정으로 11.11~12 전국노동자대회, 11월 중순~12월 국회 종료시까지 순환파업 등을 설정

-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핵심요구사항 반영에 치중하되
 -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 대정부 투쟁으로 선회 예상
- 논의과정에서 핵심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양 노총 공조를 통한 총파업도 예상

□ 비정규직 보호입법

-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조속 처리를 주장하는데 반해
 - 민주노총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제한 등을 주장하며 국회 재논의를 지속 요구
- ※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

□ 기타

-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말에는 계파간 경쟁도 예상
- 6.30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대규모 산별노조 전환을 계기로 하반기에 타연맹의 산별전환 확산 전망

<민주노총 산별전환 계획>

- ▲ 화섬연맹 : 하반기 산별노조 완성을 목표로 8월이후 산별전환 투표예정
- ▲ 건설연맹 : 올해를 산별노조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구체적 일정을 논의중
- ▲ 서비스연맹 : '07.2월까지 산별노조 완성을 목표로 설정하고, 12월 각 노조별로 산별전환 총회 실시 예정
- ▲ 공공연맹, 택시연맹, 버스노조, 화물통합 준비위는 '06.9월까지 하나의 연맹으로 통합한후 '07년말까지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 계획

2] 주요 업종별 전망

◇ 자동차·금속은 7월, 병원은 8월에 교섭 및 투쟁 집중

□ 자동차

- 현대차 : 6.26~7.3 2~4시간씩 부분파업
 - 7.4 교섭재개, 부분파업을 병행하면서 7.12 한미FTA 협상저지 파업을 기점으로 교섭을 본격화 전망
 - ※ 주요 요구사항 : 기본급 9.1%인상, 성과급으로 단기순이익 30% 및 무상주 지급, 임금체계를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·호봉제 도입 등
- 기아차 : 최근 3년간 현대차 타결결과에 따랐으나 사측이 경영악화 등을 내세우고 있어 교섭난항 예상
 - 현재 교섭 진행중으로 7.3 조정신청
 - ※ 주요 요구사항 : 기본급 9.1%인상, 성과급 300% 지급, 생산·기술직 특근 수당 지급, 복지기금 250억원 출연, 정년연장(58세→62세), 징계위 노사동수구성
- GM대우 : 타 자동차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사관계가 원만한 편이어서 무모한 파업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되나
 - 단기간의 부분파업 전개 등도 예상
 - ※ 주요 요구사항 : 기본급 8.55%인상, 정리해고 복직자에 대해 해고 기간 근속수당 지급 및 퇴직금 재정산 등
- 쌍용차 : 구내식당 납품비리 문제로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되는 등 노조내부 문제로 교섭이 중단된 상태
 - 교섭이 재개되더라도 신차 판매부진 등 경영악화로 인한 사측의 구조조정 등으로 교섭난항 예상
 - ※ 주요 요구사항 : 기본급 10.5%인상, 정년퇴직후 1년 이내 직계비속 취업 요구시 즉시채용, 정년연장(58→59세), 조합원범위를 과장급으로 확대 등

□ 금속

- 매주 화요일 교섭을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다음날 경고파업을 하는 일정에 따라 6.21 4시간, 6.28 2시간 경고파업 실시 및 7.5 4시간 경고파업 예정
 - ※ 6.21 98개사 1만여명이 참여, 6.28 42개사 6천8백여명이 참여
- 7.12 한미FTA 협상저지 민주노총 총파업후 집중교섭 실시 예정
 - ※ 주요 요구사항 :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%(877,800원)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,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, 각종휴가 등을 정규직과 동일 적용 등

□ 병원

- 노조는 7월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총파업을 예고
 - 그러나, 현재 노사가 7월내 타결을 위해 협상속도를 높이고 있는 등 예년과 비교해서는 교섭분위기는 양호
 - ※ 주요 요구사항 : 연말까지 사용자단체 구성, 임금 정규직 9.3% 인상 등

□ 공공

- 공공연맹은 7.11~7.13 총파업 돌입후 대정부교섭 재취를 위해 10월말경 후속투쟁 전개 예정
 - ※ 7.11 파업 및 상경투쟁 → 7.12 세종로청사앞 집회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합류 → 7.13 지역·권역별 집회
 - 다만, 대부분 사업장이 교섭초기여서 실제 파업 참여 사업장은 많지 않을 전망

□ 건설

-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는 7.2 타결되었으나 포항·울산·광양 등에서 조합원 존재유무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
 - ※ 포항지역건설노조는 7.1부터 파업중,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7.6 파업돌입 계획
 - ※ 타워크레인 노사는 조정기간을 연장하여 교섭중이나 임금인상 폭 등에 대해 이견

3. 대응방향

◇ 분규를 최소화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등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력

<1> 7월에는 분규예방 및 최소화에 역점

- 본부와 지방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분규 사전예방 등 적극 대처
- 「법과 원칙」을 견지하면서 「대화과 타협」을 통해 노사자율 해결을 적극 지원
- 자동차, 금속, 병원 등 업종별 TF를 수시 가동하여 원만한 교섭을 지원
- 파업시 국민불편 및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사전에 강구

<2>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도출

-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

<3>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

-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조의 불법파업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